



# ING 부채감축, 해외보험사업 기업공개 가능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ING는 2011년 6~7월 중 ING Direct USA, ING Car Lease, Latin America Insurance를 연이어 매각함으로써 비핵심사업부문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- ING는 2011년 6월 ING Direct USA를 Capital One에, 7월초에는 ING Car Lease를 BMW에, 7월 말에는 Latin America Insurance를 콜롬비아의 Grupo de Inversiones Suramericana에 매각함.
- 이에 따라 ING의 주요 보험 사업은 유럽과 아시아지역 등에만 국한되게 됨.

〈표 1〉 ING그룹 사업부문 경과

일자	매각 사업부문	인수자	매각 금액
2009. 11	호주, 뉴질랜드 생명보험 및 자산운용	ANZ	11억 유로
2010. 01	Asian Private Banking	Oversea-Chinese Banking Co.	3억 유로
2010. 02	미국 ING 독립 중개 사업	Lightyear Capital LLC	-
2010. 08	캐나다 ING Summit 등	KingSett/AIMCo	20억 CAD
2010. 12	Fubon Financial Holding	기관투자자	약 4억 유로
2011. 02	ING 부동산투자관리 사업 대부분	동종 부동산투자관리 사업자	10억 유로
2011. 06	ING Direct USA	Capital One	-
2011. 07	ING Car Lease	BMW	-
2011. 07	Latin America Insurance	GrupoSura	27억 유로

자료: ING.

■ ING의 이와 같은 사업부문 매각은 EU의 '구제금융 인수 금융기관 공정경쟁 및 생존 가능성 제고' 원칙 준수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임.

- 금융위기 이전 ING는 은행 및 보험업을 겸업하는 방카슈어러 모델을 통해 규모의 경제, 자본의 효율적 조달, 수익의 안정화를 달성하였음.

- 그러나 금융위기로 손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ING그룹은 2008년 10월 20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(134억 달러)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음.
    - 100억 유로 중 50억 유로는 은행부문, 20억 유로는 보험부문, 30억 유로는 ING그룹 전체의 자본 확충에 사용되어 각 사업부문의 부채/자본비율이 10%로 낮아짐.
  - 이후 EU는 공정경쟁 회복 및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해 ING그룹의 보험사업과 투자영업을 핵심사업인 유럽지역의 은행사업과 분리하는 동시에, 비핵심사업을 매각 또는 공개하여 구제금융의 원금과 이자, 채무보증(280억 유로)을 변제하도록 지시함.
- ING는 그동안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중 70억 유로를 상환하였고, 2012년 5월 까지 이자와 나머지 구제금융액인 45억 유로를 상환할 것이라고 밝힘.
- 구조조정이 끝나는 2013년에는 ING그룹의 자산이 약 6천억 유로로 감소하여 2008년 9월 30일 대비 70% 수준이 될 전망이다.
  - 그러나 구제금융 상환으로 보험사업의 부채/자본비율은 다시 상승하여 30%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.
- 금번 Latin America Insurance 매각으로 보험사업부문 기업공개에 위한 부채/자본비율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유럽 또는 아시아지역 보험사업자의 기업공개가 가능해짐.
- 보험사업부문을 기업공개하기 위해서는 부채/자본비율이 30% 이하이어야 함.
    - 보험사업부문에서 30% 부채/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ING의 부채규모가 30억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, Latin America Insurance 매각으로 부채규모는 약 28억 유로로 감소함.
  - 이에 따라 한국 ING생명보험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지역 보험사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됨.

(Financial Times 7/25, 7/26, ING)